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6월 2주~6월 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5월 실업률 5.0%로 하락(MRPiPS, 6.6)
 - 폴가족노동사회정책부(MRPiPS)에 따르면, 5월 실업률은 5.0%로, 4월 5.2% 대비 0.2%p 하락함
 - 실업자 수는 78만 4천 명으로 전월보다 1만 8,700명 감소
 - 폴통계청(GUS)은 4월 실업률을 5.2%, 3월은 5.3%로 발표한 바 있음
 - EU 통계청(Eurostat)은 별도 기준으로 4월 폴란드 실업률을 3.3%로 추산, EU 내 최저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됨
 - 고용시장 개선은 폴란드 경제 회복세 및 노동 수요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됨
- 중앙은행, 기준금리 5.25%로 동결, 인플레이션 안정세 반영(6.4)
 - 폴란드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(MPC, Monetary Policy Council)는 6월 기준금리를 5.25%로 유지, 지난 5월 0.5%p 인하 이후 추가 조정은 없었음
 - 5월 금리 인하는 2023년 10월 이후 첫 조치였으며, 아담 글라핀 스키 총재는 “일회성 조정” 이라고 언급하며 경기완화 사이클의 시작은 아님을 강조
 - 폴통계청에 따르면,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.1%로,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
 - 중앙은행은 2025년 물가상승률을 평균 4.9%, 2026년 3.4%, 2027년 2.5%로 전망하고 있음
 - 폴란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계획을 따르면, 2026년 이후 점진적 인플레이션 완화(2027년 3%, 2029년 2.5%)를 예상하고 있음

- 2024년 폴란드 1인당 가처분소득 3,167즈워티로 증가(GUS, 5.29)
 - 폴통계청(GUS)에 따르면, 2024년 1인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,167즈워티(약 840달러)로, 전년 2,678즈워티(약 722달러) 대비 약 18% 증가
 - 가처분소득은 세금,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납부 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소득을 의미함
 - 2022년과 2021년에는 각각 2,355즈워티, 2,103즈워티 수준이었음
 - 2024년 4월 기준 기업부문 평균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9.3% 상승해 9,045즈워티(약 2,135유로) 기록
 - 최저임금도 2024년 하반기 4,300즈워티에서 2025년 1월 4,666즈워티(약 1,110유로)로 인상됨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, 5월 소비자물가 15.9% 상승,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(6.11)
 - ^우통계청은 5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5.9%로, 4월 15.1%, 3월 14.6%에 비해 상승했다고 발표함
 -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3%로, 4월 0.7% 대비 상승했으며, 올해 1~5월 누적 상승률은 5.6%임
 - 식료품 및 비알콜 음료 가격이 2.8% 오르며 전체 상승을 견인, 특히 과일은 17.6%로 가장 큰 폭 상승
 - 반면, 달걀(-8.7%), 우유·버터·꿀(-0.5-0.8%) 등 일부 품목은 하락세를 보임
 - 비식품 분야에서는 의류·신발 가격이 1.9% 하락했고, 교통은 전체적으로 0.1% 하락했으나 도로 여객 운임은 0.5% 상승함
- 우크라이나 인력 부족, 경제 구조 변화 촉진(6.5)
 - 우크라 주요기업 TERWIN* 회장 루슬란 쇼스타크에 따르면,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 전 우크라이나의 노동 가능 인구는 약 1,730만 명이었으나, 현재는 군 복무, 방위산업 종사, 동원 회피, 해외 이주 등으로 약 480만명이 노동 시장을 떠난 상태라고 설명
 - * 우크라이나의 대기업으로 본사는 드니프로에 위치, 17개 회사, 30,0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자산 관리, 소매, 개발, 자동차 사업, 자선 사업 등 다양한 산

업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

- 인력 부족이 임금 상승 등을 견인, 경제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, 2019년 평균 월급 385달러에서 2025년 542달러로 크게 오름
- 쇼스타크는 “소규모 고임금 국가 모델이 더 이상적” 이라며, 룩셈부르크, UAE,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를 우크라이나의 미래 모델로 제시

○ ⁹ 중앙은행, 외환 규제가 투자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(6.5)

- 전면전이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지만,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의 외환 거래 및 배당 제한도 투자 유입을 저해하고 있음
- Metinvest 고위 경영진 보도비츠는 “전쟁 이전 대기업들은 수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으나, 현재는 500만~1,000만 유로 수준(약 79억원~158억원)으로 자금 조달이 제한되고 있다” 고 지적
- 월 100만 유로(약 16억원) 외환 거래 한도는 중소기업에는 적합하나, 25억 달러(3.4조원)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대기업에는 과도한 제약임
-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(FDI)는 33억 달러(약 4.5조원)로 2021년 78억 달러(10.7조원)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
- 의회 세제위원장 헤트만체프는 NBU에 외환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 환경 개선을 촉구

○ 우 서부 지역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요 회복세, 산업·물류 시설 중심 신축 확대(5.30)

- 부동산전문가협회에 따르면, 전면전 상황 속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투자는 비교적 안전한 서부 및 수도 키이우에 집중되고 있음
- 소매 공간 임대 수요는 이미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, 임대료는 위치와 수요에 따라 m²당 10~50달러 수준
- 국가통계청에 따르면, 2025년 1분기 비주거용 건축물 준공 면적은 총 61.8만m²(187,000평)로 집계됨
- 이 중 산업·창고 시설이 27.1만m²(약 82,000평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도소매(11.1만m²), 사무실(2.6만m²), 숙박시설(0.85만m²) 순임

-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속도는 느리지만,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함
 - **우크라이나 복합 산업·투자 그룹 BGV, 에너지·유틸리티 분야에 1.47억 달러 투자 추진(6.3)**
 - BGV 그룹은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고, 총 147백만 달러(약 2,008억원)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
 - 이 중 5개 에너지 프로젝트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,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기업(ESCO, Energy Service Company) 설립도 추진 중임
 - 상수도, 난방, 전력, 송수관 등 유틸리티 인프라 시장은 수십억 흐리우냐 규모로 평가되며, BGV는 해당 분야 전반에서 수천만 유로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
 - BGV는 지난해 50여 개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했으며, 이 중 15건이 투자 평가를 통과하고, 최종적으로 5건이 승인됨
 - 연말까지 총 1억4,700만 달러(약 2,008억원)를 투자할 계획이며, 주요 투자처는 ▲건축자재 제조업체 에어록(Aeroc)社에 5천만 달러, ▲5개 에너지 프로젝트, ▲부동산 개발사업 등임
 - BGV는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, 5년 이상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강조
 - **우, 볼린(Volyn) 지역에 첫 ‘EU 수출형 수소 생산 공장’ 건설 추진(6.5)**
 - 오스트리아 에너지 기업 Wien Energie와 우크라이나의 UDP Renewables*가 협력해 볼린 지역에 수소 생산 공장을 포함한 산업용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함
- * UDP Renewables : 2017년 키이우에 설립, 우크라이나의 주요 재생 에너지 투자 및 개발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(Scythia-Solar-1 13MW 발전소, 자포리자 지역, Scythia-Solar-2 발전소 33.1MW, 멜리토폴, 페르보마이스크 Pervomaysk 19.7MW)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 설계 및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음

- 해당 프로젝트는 ‘GREENWEST PtX’ 로 명명, 재생 가능 에너지 (태양광, 풍력 등)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, 이를 EU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Wien Energie는 생산되는 수소의 Offtaker 역할을 하며, 우크라이나에서 오스트리아(비엔나)까지의 수소 운송 방식 개발도 함께 추진 중
- 이 계획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, 천연가스를 대체할 기후 중립 에너지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함
- UDP Renewables는 이번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밝힘

○ S&P, 우크라이나 GDP 연동 국채를 디폴트로 강등(6.5)

- 국제 신용평가사 S&P Global은 2025년 6월 2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665백만 달러 규모의 GDP연동국채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‘CC’ 에서 ‘D(디폴트)’ 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- S&P는 “계약상 10영업일의 유예기간 내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” 며,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하고 구조조정 전까지는 상환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유로 설명
- 다만, S&P는 우크라이나의 외화 국가신용등급(SD/SD, Selective Default, 선택적 디폴트)은 유지했으며, 현지통화 기준 신용등급(CCC+/C)은 ‘안정적’ 전망으로 유지함
- 이는 정부가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현지통화 부채 상환에는 계속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, 해당 부채의 주요 보유자가 자국 은행들임

○ EU,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재도입 발표(6.6)

- 2025년 6월 6일부터 EU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시행된

일시적 면세 조치의 종료를 의미함

- 이번 조치는 곡물, 꿀, 계란, 가금류 등 대형 농기업 중심의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 EU 농산물 시장이 교란된다는 회원국들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, 폴란드와 프랑스 등 농민 시위가 잇따른 국가들의 압력이 반영됨
- EU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며, 우크라이나는 주요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
- 반면 폴란드는 전쟁 이전의 무역 조건 복귀를 주장하며, EU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한 무역 질서 회복을 촉구함

○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인상, 우크라이나 수출 영향은 제한적(6.5)

-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
-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수입 규제를 위한 것으로, 관련 제품이 미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최신 데이터를 근거로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
-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시적 관세 면제를 받았으나, 3월 12일부터 25%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고, 이번 조치로 50%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
-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금속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,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전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
-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2.1%(\$8.7억), 수입은 4.9%(\$34억)에 불과
- 미국 시장 진입 장벽, 경쟁 심화, 물류 비용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낮은 편
- 우크라이나 철강 업계는 향후 수출 다변화 및 EU 시장 중심 전략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

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폴란드, 슈체친에 세계 최대 규모 풍력 타워 제조 공장 건설 중(5.30)
 - 폴란드 북부 슈체친 항만지역에 17헥타르 규모의 풍력 타워 제조 공장이 건설 중이며, 2026년 가동이 예정됨
 - 해당 공장은 연간 약 100기의 풍력 타워를 생산할 계획이며, 각 타워는 14MW 출력, 450톤 무게, 직경 10m, 길이 50m 규모로, 육상 운송이 어려워 항만을 통한 해상 운송이 예정됨
 - 공장은 북유럽 및 발트해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해상풍력 시장을 겨냥한 입지로 조성되며, 항구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생산물의 선박 운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됨
 - 본사업은 스페인 Windar Renovables가 투자하고, Windar Polska가 운영을 맡으며, 오스트리아 건설사 PORR가 시공을 담당함
 -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Windar Polska에 230백만 즈워티(약 5,400만 유로) 규모의 재정 보증을 제공하고, Windar Renovables는 총 653백만 즈워티(약 153백만 유로)를 투자할 계획임

< Windar Renovables 기업 개요 >

□ 설립년도 및 본사 위치

- 2007년 설립, 스페인 Avilés 지역에 본사 위치

□ 매출규모 및 직원수

- 직 원 수 : 1,700명(2024)
- 연간매출 : 4억 4,957만 유로(2023)

□ 주요제품 및 생산거점

- 주요제품
 - 육상 및 해상 풍력 터빈 타워
 - 해상 터빈타워 기초 구조물(Transition Piece, Monofile 등)
- 생산거점
 - 스페인, 인도, 브라질, 멕시코, 폴란드 등 5개국에 10개의 생산시설을 운영

□ 주요 지배구조 및 소유권 변화

- '24. 2월, Siemens Gamesa는 Windar Renovables의 32% 지분을 Bridgepoint에 매각
- 현재 Bridgepoint는 주요 투자자로 참여, Siemens Gamesa는 여전히 Windar의 전략적 고객으로 남아있음

< Windar Renovables 기업 개요-계속>

□ 폴란드 내 법인 투자현황

- Windar Polska Sp. z o.o.
- 스페인 기업 Windar Renovables의 100% 자회사
- 폴란드의 슈체친(Szczecin) 항구에 대형 해상 풍력 타워 생산 공장 건설 중

□ Windar Polska 슈체친 프로젝트 개요

- 설립연도: 2022년 2월, Windar Renovables의 폴란드 투자 결정 발표
- 위치: 폴란드 슈체친 항구, Dębicki 운하 인근 17ha 부지
- 투자 규모: 약 7천만 유로
- 생산능력: 연간 100기의 해상 풍력 타워 생산 예정
- 생산제품: 14~20MW급 차세대 해상 풍력 터빈용 타워, 해상타워 기초구조물 등
- 공장 건설사: 오스트리아 건설사 PORR
- 생산 시작 예정일: 2026년 상반기
- 주요 시장: 폴란드, 발트해 및 북해 연안 국가들

○ 폴란드 두다 대통령, 말레이시아·싱가포르 순방 통해 경제·안보 협력 강화 추진(6.8)

-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6월 중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순방할 예정이며,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은 20년 만에 처음
- 순방은 경제 중심의 외교 일정으로, 양국 정상과의 회담, ‘폴란드-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’ 참석, 현지 주요 기업 및 산업 현장 방문 등이 포함됨
- 말레이시아에서는 폴란드산 PT-91M 전차 등 방산 장비를 소개하고, 말레이시아군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된 협력 논의 예정
- 농식품 시장 접근 확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실무 로드맵 수립 논의도 포함됨
- 싱가포르에서는 투자, 사이버보안, 첨단기술, 물류, 식량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, 싱가포르는 아시아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됨
-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나, 싱가포르는 역내 유일하게 대러 제재에 동참

- 이번 방문은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적 신뢰 구축과 협력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둠

○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, 폴란드 대통령 당선 확정(6.2)

- 결선투표 결과, 보수파 카롤 나브로츠키(Karol Nawrocki)가 50.89% 득표로 중도 성향의 바르샤바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(Rafał Trzaskowski, 49.11%)를 근소하게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됨(약 36만표 차이)
- 유권자 투표율은 71.63%로, 1차 투표(67.31%) 대비 상승. 1차 투표(5.18)에서는 트샤스코프스키가 31.4%, 나브로츠키가 29.5%를 얻어 결선 투표로 이어짐
- 나브로츠키는 친트럼프 성향의 유럽회의주의자이며, 보수 야당 ‘법과 정의당(PiS)’의 지지를 받음. 전통적 가톨릭 가치 수호, 유럽 통합 신중 접근,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대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
- 트샤스코프스키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EU 성향 여당 ‘시민연합(KO)’ 소속으로, 유럽 통합 강화와 사법개혁,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
- 나브로츠키의 당선은 폴란드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지며, 의회 다수를 차지한 친EU 성향의 정부와 대통령 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과 입법 지연 우려가 제기 됨
- 이번 결과는 폴란드 사회의 심화된 양극화를 반영하며, 도시-농촌, 진보-보수 간의 균열이 정치적으로 더욱 뚜렷해졌음을 시사함

○ 미 트럼프 대통령, 폴란드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에 ‘만족’ 의사 표명(6.4)

-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중도파 바르샤바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를 누르고 당선된 것에 대해 “만족한다” 고 밝힘
- 트럼프는 지난 5월 1일 백악관에서 나브로츠키 후보가 폴란드 내 ‘상식과 강력한 국경’ 을 지지하며, ‘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진

보적 DEI(다양성·형평성·포용) 정책’에 반대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짐

- 나브로츠키는 “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 및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”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힘
-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“폴란드가 승자를 선택했다”며 나브로츠키 당선을 축하했고,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나브로츠키를 축하하며 “강력한 군사력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는 폴란드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”고 평가함
- 나브로츠키는 우파 정당 법과정의당(PiS)의 지지를 받아 50.89% 득표, 트샤스코프스키는 49.11%를 얻었으며, 8월 6일 취임예정임

○ 폴란드-독일, 나토 동부 방어 강화·對러 제재 촉구(6.5)

- 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요한 바데폴 독일 외무장관은 베를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“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동부 국경 방어는 역사적 책임”이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
- 시코르스키 장관은 미국의 군사지원 감소에 대비해 유럽의 자주적 안보 책임을 강화하고,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
- 바데폴 장관은 모든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선언하며, 독일이 신속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. “폴란드 안보는 독일 안보”라며 유럽 방공망 강화도 우선 과제로 꼽음
- 양국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독일의 불법 이민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, 시코르스키는 최소한의 불편을 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독일 측에 벨라루스 접경 지역 점검 요청
- 나치 피해자 문제에서 폴란드는 배상을 재차 요구, 독일은 추모 약속 및 베를린 내 영구 추모시설 설치를 지지한다고 답변
- 양국은 2018년 이후 중단됐던 ‘폴란드-독일 포럼’ 재가동하였으며, 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활동에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함

- 폴란드 CPK, 바라노프 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시공사 선정 위한 입찰 절차 개시(5.30)
 - CPK는 바라노프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3개 탑승동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착수했으며, 계약 체결은 2026년 말, 공사 완료는 2031년 목표
 - 본 입찰은 CPK 역사상 최대 규모로, 터미널 건설비만 50억 즈위티 (약 1.5조 원) 이상, 전체 공항 구성요소 사업비는 약 430억 즈위티 (약 13조 원)로 추산됨
 - 입찰 참가 자격은 EU 또는 폴란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기업에 한정되며,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및 시공 실적 보유 필수
 - 향후 확장 가능성과 제3활주로 설치를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포함되며, 재원은 국채·부채조달·국영 공항운영사(PPL) 자금으로 총당 예정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우크라이나 재무부, 2026년까지 전쟁 지속 가정 하 예산 준비 착수(6.3)
 - 우크라이나 재무부 세르히 마르첸코 장관은 2026년 국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접근, 전쟁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편성 준비 중이라고 밝힘. 장기적 관점에서 이는 국가 경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고 설명함
 - 2025년 예산은 수입 2.33조, 지출 3.93조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, 지출을 추가로 4,000~5,000억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
 - G7의 ERA 이니셔티브 자금* 덕분에 2025년 외부 자금 조달은 비교적 원활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위한 일부 예비 재원도 확보됨
 - * ERA : 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 for Ukraine, G7 국가들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
 - 그러나 2026년 예산의 전반적인 재정 조달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, 특히 2027년 1분기 종료 예정인 IMF 프로그램 이후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
- 2026년 외부 재정 수요는 약 390억 달러로 추산되며, 이 중 절반 정도만 현재 확보된 상태로, 우크라이나는 나머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의 중임
- 러-우, 이스탄불 2차 협상에서 포로 교환 합의, 휴전·정상회담은 진전 없어(6.2)
 -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2차 협상이 6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나,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음
 - 우크라 국방장관 루스텐 우메로우는 회담 결과, 중병자 및 25세 미만 포로 약 1,000명을 대상으로 전원 상호교환(all-for-all exchange)에 합의했다고 발표함
 - 러시아는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 6,000구를 인도할 계획이며, 일부 전선 지역에서 시신 수습을 위한 2~3일간의 휴전도 제안함
 - 그러나 러시아는 전면적 휴전이나 젤렌스키-푸틴 간 정상회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함. 대신 자국 측 휴전 조건을 명시한 양해각서(MOU)를 제시했고, 우크라이나는 이를 검토 중임
 - 러시아의 양해각서는 ▲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, 루한시크, 헤르손, 자포리자 점령지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
 -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협상 조건으로 ▲무조건적 전면 휴전, ▲포로 전원 석방, ▲납치된 아동 송환, ▲정상회담 준비 등을 제시함
- 러-우 정상회담 무산, 이스탄불 협상 지속 여부 불투명(6.6)
 -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브랴نس끄·쿠르스크 지역의 철도 및 러시아 내 교량 폭파 사건과 관련해, 우크라이나의 책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“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상이 어렵다”고 주장
 - 푸틴은 해당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,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2차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
 - 이에 대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“같은 요구만

반복되는 협상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” 며, 러시아 측의 반응이 미흡하고 협상 지연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

-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종전 해법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명확한 대응이 없으며, 이스탄불 협상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침
- 양측 입장 차가 지속되면서, 향후 협상 일정과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

○ 트럼프, 대러 추가 제재 “필요시”, 우크라이나도 제재 대상으로서의 가능성 언급(6.9)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상원 제재 법안에 대해 “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 법안에 승인하겠다” 고 밝혔으며, 러시아가 평화적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경고함
- 트럼프 대통령은 “합의가 불가능하고 유혈 사태가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” 이라며, 제재 대상이 우크라이나에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
-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에서 다수가 지지한 대러 제재 법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설득에 나섰으며, 미-러 관계 개선을 고려해 과도한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
- 한편, 미-중 전략적·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에 대해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음

○ 유럽, 미국의 대(對) 우크라 지원 공백 보완 가능, G7과의 안보 협력 강화 추진(6.10)

- 독일군 무기지원 조정관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소장에 따르면, 유럽과 캐나다는 이미 작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(200억 달러)를 상회했으며, 미국의 지원 중단 시에도 우크라이나 방어는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함
-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임 미국 대통령 승인 하에 무기를 계속 지원 받고 있으나,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신규 지원을 승인하거나 제3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함

- 다만, 미국이 제공하던 정보 자산, 미사일 방공 시스템, 미국산 무기 부품 등 일부 핵심 군사 지원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 -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안보 영향력 축소에 대응해 G7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, 6월 중 캐나다와 방위·안보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계획임
 - 동 협정은 캐나다 기업의 EU 1,500억 유로 규모 방위기금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, EU는 이미 알바니아·일본·몰도바·북마케도니아·노르웨이·한국 등과 유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
- 영국,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지원 발표, 네덜란드는 4억 유로 해상안보 패키지 제공(6.5)
-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10만대의 드론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, 이는 총 350백만 파운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임
 - 해당 패키지에는 이미 전달 완료된 포탄 14만 발과 군사 훈련을 위한 247백만 파운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, 영국의 올해 누적 군사지원은 약 45억 파운드에 달함
 - 네덜란드는 약 4억 유로 규모의 해상안보 지원을 통해 순찰정·수송정·요격정·특수작전용 선박 100척 이상과 해상드론 50기 이상, 무기체계·센서·예비부품,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임
 -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, 제3국으로부터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
 - 미국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,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 나토대사가 전함
- 우크라이나-일본, 인프라 협력 확대, 총 150억 달러 규모 지원(6.5)
-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일본으로부터 인도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으로 약 150억 달러를 수령했으며, 향후 일본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

- 양국은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를 중심으로 철도, 도로, 항만 등 주요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
 - 철도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(Ukrzaliznytsia)가 철도 레일 2만5천 톤 및 대형 건설 장비를 지원받았으며, 추가로 3천 톤의 레일 주문이 예정됨
 - 도로 분야에서는 파손된 교량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는 모듈형 교량과 교량 점검 장비·차량이 제공됨
 - 항만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항만청이 긴급 복구용 건설 장비를 수령했으며, 향후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항만 현대화·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
- 우크라이나, 2025년 겨울 대비 가스 비축 지원 위해 유럽 4개국과 협력 추진(5.30)
- 불가리아·그리스·몰도바·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의 가스망 운영사들이 협력해, 미국산 LNG를 그리스에서 출발시켜 트란스-발칸 회랑(Trans-Balkan Corridor)*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계획 마련
 - * 트란스-발칸 회랑(Trans-Balkan Corridor): 발칸 반도 지역의 전력 및 가스 송전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하는 지역 연결망
 - 해당 경로를 통한 공급은 2025년 6월~10월 기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며, 가스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요금제 도입 및 25% 할인, 우크라이나 측에는 46% 할인 적용
 - 5월 29일, 6월 공급분 1일 290만^m 규모 of 가스 운송 입찰 실시. 이후 매달 넷째 월요일에 다음달 물량 입찰 진행 예정
 - 운송 경로는 우크라이나 전용으로 설계되었으며, 입찰은 단일 가격 경매 방식으로 용량을 배정
 - 우크라이나는 2025년 겨울철 대비 약 50억^m의 가스 저장 필요. 본 패키지가 겨울철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 기대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7(15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
'25. 7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 완료('25.2), 현지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완료('25.3), 중간보고 완료('25.6), 자료 수취 지연 등으로 용역 연장 협의중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11월 최종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-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
'25.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착수보고('24.2월) • 1단계 중간보고('24.9월) • 2단계 중간보고('24.10월) • 초청연수 실시('24.10월) • 현지 최종보고('25.4월) • 국내 최종보고('25.5월)
우만 스마트 시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리스필 공 현대화 재 등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 上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